

관광안내도



[첫 번째 코스] 벽초 홍명희 선생의 옛집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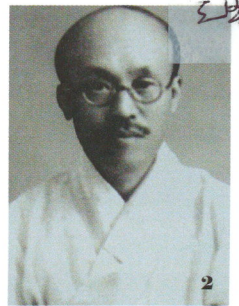
이제는 커다란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은 홍명희가 1939년부터 5년간 살았던 집이다.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일본 유학길에 올라 다이세이 중학(大成中學)을 졸업하고, 이후 오산학교와 휘문학교 등에서 교육자로 지내며 1924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1927년 민족 단일 조직인 신간회를 창립하며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는 등 일제 치하를 격렬히 반대하며 옥고를 겪기도 하였다.

독립에 대한 투지가 넘달랐던 홍명희는 혹독한 시대의 시련 가운데 대하 역사소설인 <임궏정>을 집필한다. 장장 10여 년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 작품은 우리나라 역사소설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광복이나 사회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역사소설과 달리, 홍명희의 <임궏정>은 천민 출신인 백정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민중의 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는 문단의 호평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에도 충분했다. 광복 후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던 홍명희는 북한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부수상 등의 요직을 거처며 생을 마감하였다.

<임궏정>의 호평 속에서 작가로서 명망을 드높이기 시작하던 그는 일제의 압박과 화유에 시달리다 창동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당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던 인사들에게 일제는 친일활동을 펼치도록 압박하던 상황이었다. 홍명희는 <임궏정> 연재를 중단하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창동으로 이주하게 된다.



옛주소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244-1번지
현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36 나길 40 신도브레뉴 아파트 103동 자리



1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벽초 홍명희 선생의
옛집터.
2 벽초 홍명희,
1888.5.23~1968.3.5



[두 번째 코스] 고하 송진우 옛집 터

독립 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고하 송진우는 김병로, 정인보와 함께 창동의 세 마리 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귀국하여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 넣었다.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으로 일제에 체포되며 1년 반의 옥고 끝에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였다.

출감 후 고하는 언론인으로서 다시 한 번 나라의 자주 독립에 앞장선다. 1922년 물산 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하고, 1940년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주요 직책을 맡으며 민족 활동을 펼쳤다. 그가 1938년 무렵 당시 정인보, 김병로, 홍명희 등이 은거하던 창동으로 이주하여 1945년 광복까지 7년 가까이 창동생활을 하게 된다. 광복 후에는 이승만 및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정부수립에 힘쓰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 문제로 임시 정부 요인들과 회담을 펼치는 가운데, 민족주의자 과격파 한현우 등 6인에 의해 암살되었다.

옛주소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281-1번지
현주소 서울시 도봉구 창동 291-1번지

3 유치원 부지로 변한 고하 송진우 선생 옛집터.
4 고하 송진우, 1887.5.8~1945.12.30

민족 지도자들의 은거지, 창동

그 시절 경기도에 속했던 창동은, 뒤로는 도봉산이 앞으로는 중랑천과 우이천이 흘러 탁월한 자연 지형을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당시경성(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창동역을 통해 쉽게 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수선한 경성을 벗어나 잠시 머물기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여러 민족 지도자들을 창동으로 불러 모은 데에는 가인 김병로의 역할이 컸다. 신간회의 중앙 집행위원장이었던 김병로는 창동을 은거지로 택하였고, 그를 따라 홍명희를 비롯한 정인보, 송진우 등도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